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미시위들



남조선인민들과 주미국들의 반발로 하여 남조선당국은 《싸드》를 성주에 정식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왔었다. 립시배치라고 했었다. 하지만 올해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보면 결코 《립시》가 아니라 이것을 알수 있다. 5월부터 매주 2차 이상 《싸드》기지에로의 물자반입을 정례화하고있는것은 성주기지의 확장과 《싸드》의 정식배치를 추구하고있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이 갈수록 더욱 무모해지고 무분별해지는 남조선당국의 남조선당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싸드》기지의 정식배치가 시작하는 또 한가지는 남조선이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라메의 대상, 북쪽의 조준경에 들게 되었다는것이다. 사거리가 종전의 《싸드》보다 3배정도 긴 미국의 《확장형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된다면 조선반도주변국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지금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행을 위한 사수에 남조선을 빼어 놓으려 하고있다. 그를 위해 《동맹》강화를 요란스레 떠드는 한편 《오키스》, 《퀴드》와 같은 침략적인 기구들을 조작하고 거기에 남조선을 끌어들이려고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세계의 정치추이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보아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부터 새로운 《맹전》의 서막이 열릴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싸드》 가고 평화 오라. 이것은 성주인민들의 절규만이 아닌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에 방해만 되는 그런 망동을 강행하는것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인가. 김창운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눈치보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을 받으면서도 《싸드》에 매달리는 망동의 기저에는 바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이 꿈틀거리고있다. 남조선은 미국의 미사일전초기지, 북침전쟁기지로 더욱 전략적기지로 불려지고있다. 본사기자



전력자산 전개비용 우리가 줄

남조선에서 사회의 악법인 《보안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지난 1일 《보안법》이 조작된 날을 맞으며 《보안법폐지대선시행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대악법 《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요구한것도 한 실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꾼 법으로 73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탄압한 가장 악명높은 악법이다.》 정당한 주장이다. 《보안법》은 리승만독재에 의해 세상에 빠져져나오면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인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존엄, 지어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해온 불법무도한 악법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인권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독재《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한 피비린 살륙 도구로 되어온 《보안법》이다. 남조선의 독재통치사는 《보안법》이 시행해온 광란의 역사이고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죄악의 자취라고 할 수 있다. 《보안법》은 동족을 《주적》으로 매도하는 동족대결의 칼날이고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을 《러적》으로

말라간 남조선의 진보적인 시민사회 및 통일운동단체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여러 단체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발을 맞추어 반미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준비할 조직, 언제나 민족문제에 관심을 두는 상설조직, 과감하고 참신한 활동을 벌리는 실천조직을 내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6일부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저

지시키고 북남공동선언이행 을 위한 민족선언대회 및 서명운동, 미군범죄반대, 미고위인물들의 서울행각반대투쟁 등 다양한 반미통일운동

특히 미국의 책동으로 남북공동선언들의 리행 3년동안 자주며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를 지키면 운명을 스스로 승리이다.》, 《민족자주는 너무 당연한것이다.》 등을 주장하며 민족자주실현을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족의 통일과

본사기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결성

로 결정할수 있지만 자주를 버리면 남이 시키는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의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절실히 느꼈다고 그들은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자주는 생명이야.》, 《민족자주는 통일이다.》, 《민족자주는 살 길이다.》, 《민족자주는 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주도해나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분열과 전쟁으로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통일밖에 없다고 악성전염병사태와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있다고 주

본사기자

세군부대철거를 촉구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11월 27일 경성남도 창원에서 《진해미군세군부대추방경남대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진해미군세군부대추방경성남도운동본부 주최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군부대 철거와 《한미동맹》해체,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있다. 본사기자



어느 한 외국문화에 나오는 사자와 히에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수렴의 왕이 되고싶어 히에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에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권력탈취에 나선 윤석열은 《사자》라고 해들가요. 그의 심심호위 무사로 나선 《국민의힘》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이미 《히에나》로 명명된것은 분명하고. 그들의 《반란》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윤석열의 무시, 무시 또 무시... 권력쟁탈을 위해 당권쟁탈이 먼 저인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 리준석에 대한 무시가 벌써 몇번 재인지 모릅니다. 리준석이 없을 때를 딱 골라 입당하지 않나, 리준석이 조직한 모임에 공개적으로 빠지다 못해 《왜 오라가라 하느냐》고 불평을 부리지 않나,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었다고 아예 내놓고 무시합니다. 당대표가 반대하는 인물들만 끌어서 자기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받아들인다, 청

물론 파리에가 꿀을 빨아 먹는다고 해서 꿀이 없는 않습니다. 더러워질뿐.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파리에》가 권력이라는 《꿀통》을 차지하면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의 보수《정권》을 지내서 잘 알것이다. 사회의 모든것기에 아예 풍지박산났으니까요. 그런 조상들의 후예답게 《국민의힘》것들이 이제는 《파리에》 정도가 아니라 《히에나》무리가 되어 날뛰고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생 등이, 《1일1방언》자, 허풍쟁이같은자를 《사자》로 내세우고. 의국문화에서처럼 말입니다. 만화의 히에나들에게 필요한 수렴의 실제적제왕이 되는것이 어리석은 사자를 왕으로 삼기자가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은 오직 권력을 향해 돌진합니다. 만화를 보면 중앙에 어리석은 사자는 히에나들의 먹이감이 되고말던데 윤석열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려는지. 현 남조선정국이 연출하는 또 하나의 정치만화같습니다. 본사기자 김정혁

《사자》와 《히에나》들

한다고 해야 할것이지만. 그러자 리준석이 팔박거리며 영달하였습니다. 조선의원들과 밤새껏 화살인지 위안술인지 퍼마시다가 《그럼 여기까지》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는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퍼떡은 된장독이 작아서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미숙스레 노는 꼴을 보면 리준석이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거나말거나 윤석열은 내 할바반 한다 이러면서 당대표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무사인 것찰나무병을 그러니 《리준석패선》이 정설이라는 말이 돌만도 합니다. 리준석이 참 가련하게는 되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무시, 무

힘을 비롯한 방위력중대를 공약한 일본유신회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적기지공》을 비롯한 방위력중대 격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후가 보일 때 미사일거점을 선제공격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독도영유권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을 규탄하는 각계

커만 가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환멸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해에는 《국가채무》가 9 000억 US\$를 넘어설것이라는 내외의 분석자료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배척기운이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전민가들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해 현 《정권》의 경제정책실패와 《COVID-19》사태로 인한 급속한 경제위기실화, 이를 모면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지출 등으로 분석하고있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식민지하청경제로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조적모순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그에 따른 어쩔수 없는 파국적실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력대로 《원조》와 차관과 같은 외자에 명줄을 있고 그

일본사회 우경화의 산물

당, 정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중에서 기본본의 핵심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명기 여부라고 전하였다. 언론은 이것은 사실상 《주변국가의 핵, 미사일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을 선제공격할 근거를 마련하는것은 물론 전장포기를 명기한 평화협정개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적기지공격능력